

전남도 32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 대책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광주시도 대상·지급액 등 검토
내달 초 추경안 시의회 심의

모도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재난 소득 외에 정부 추경 중 지역 배분액, 실·국별 사업비 등을 파악해 '코로나19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시의회 심의를 거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미증유의 사태인 만큼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가구로, 일용직 및 단기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 가구원 구성에 따라 30~50만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수준이다. 소요예산은 128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의 사용기한을 정해 민생 살리기 효과와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전남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한 1차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 기본 소득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에도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결정과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정부 추경에 앞선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 안정 전향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 만원을 포함한 556억5790만원 규모 긴급 추경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천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충북도도 자체 추경에 긴급 재난 생활비를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에 착수하는 등 광역·기초단체별 지원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공공요금 동결·공공시설 사용료 인하...전남도 친환경농업 용자상환 1년 유예

코로나 2차 민생경제 대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용자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공공기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요금 동결,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사용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3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시, 5개 자치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 시설 이용료 등을 인상하지 않는다. 버스·택시·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6개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음식물 쓰레기 처리·정화조 청소 비용 등 자치구의 3개 요금,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가 동결된다.

특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의회와 논의해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계획이다. 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54개, 3173번으로 질만 가량은 양동복게장가 등 전통시장과 상권 중심지에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는 또 소상공인에게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4만6591개 사업장에 27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 소유 공유재산 중 573개 임대시설 사용·임대료도 인하한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7개 공공기관의 154개 시설 임대료를 2~7월 50% 낮춘다.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과 기관에는 해당 건축물 재산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이런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 송정역 시장, 광주 아울렛, 동구 동명동 등 360여개 점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이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부딪친 시민,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이어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조만간 3차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용자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은 올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상환 대상인 지난 2018년 용자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내 총 18개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이 48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용자상환일 20일에서 30일 이전까지, 해당 농업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상환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친환경농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원료구입, 수매자금, 농자재 생산자금 등을 지원한 용자금이다.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사용도록, 집행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업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www.jmall.kr)'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시·군과 중앙부처, 수도권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 2500여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비상금융조치"

청와대서 1차 비상경제회의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추경안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

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어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의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